

	[교훈] 참되게 슬기롭게 건강하게	<b>가 정 통 신 문</b> <a href="http://www.jayeon.es.kr/">http://www.jayeon.es.kr/</a>	전주자연초등학교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꿈 터	☎ 717-2300

## 학부모님께

사랑하는 학부모님, 무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서이초 000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요즘 모든 학교는 아픔 속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교 교직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9월 4일을 ‘교육 멈춤의 날’로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교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학부모님 설문과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교사회 100% 찬성, 학부모님 70% 찬성(반대 30%)의 설문자료로 운영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은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28일(월)과 8월 29일(화)에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재량휴업일 지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해 주기를 명시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입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저희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아이를 내 아이 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력하고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간혹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막말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힘들 때도 많습니다. 또 내 아이만 생각하고 담임선생님을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직원들도 가슴앓이를 많이 해서 서이초 사안에 공감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실 때는 본인 신분을 밝히고, 감정적으로 격한 어조가 아닌 정중한 언어로 예의를 갖추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반영 못할 수도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때로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님은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화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만 감싸기하다가 더 큰 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생길 때 학교는 두 아이 모두 화해하고 회복하여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걸 최고의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저 아이와 놀지 못하게 해 주세요’ 할 때 학교는 정말 힘듭니다.

또 학부모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난 내 아이를 믿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부인할 때도 정말 답답합니다. 더 힘든 것은 학교에서 두 아이들은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양쪽 부모님의 격한 감정으로 사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초기에 바로 용기있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게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게 해 주는 길입니다.**

저는 매월 첫주에 인성방송조회를 통해 전교생에게 ‘**남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절대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을 겸비한 실력을 갖춘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많이 힘듭니다. 9월 4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여 전 국민이 함께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날로 정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 간절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없는 학교장의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 법을 준수하고 쉽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학부모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픔과 혼란에 빠져 버린 학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부모의 심정으로 귀한 자녀들을 책임 있게 잘 가르칠 테니 학부모님도 학교를 믿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우리 아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더욱 신바람이 나서 밝은 긍정의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짹짹 전해질 겁니다.

이번 2학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전주자연초등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짝 웃으며 행복한 학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귀 자녀와 함께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8. 29.

**전 주 자 연 초 등 학 교 장**